

작품 내용

제 목	라면만 사신 겁니다
내 용	“아니, 제 돈 주고 음원을 샀는데 대체 왜 제 마음대로 못 씁니까!” 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일한다. 어딘가에서 노래가 쓰일 때마다 발생하는 사용료를 걷어 그 노래를 만든 이들에게 전달하는 곳. (열에 아홉은 궁금해할 질문에 미리 답해두자면, 일터에서 유명 아이돌 멤버를 본 적은 없다.) 나는 그중에서도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같은 ‘전송’ 분야의 계약과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흔히 음원 사이트라 불리는 서비스들을 통해 음악이 재생되고 사용료가 정산되어 마침내 창작자의 통장에 닿기까지, 그 긴 배관의 한 구간을 맡아 세는 곳은 없는지, 막힌 곳은 없는지 살피는 일. 어린 시절 자주 하던 게임 속에서 배관을 들락거리던 콧수염 난 아저씨가 원래 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하면 될까. 그러다 보니 이런 전화도 종종 흘러들어 왔다. 그날 전화를 건 이용자는 단단히 벼른 기색이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정당하게 결제한 음원을 쓰는데 무슨 허락이 더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의 억울함이 꼭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분명 값은 치렀을 것이다. 적당한 말을 골라 대답을 이어가며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 다운로드한 한 곡에 700원꼴, 저작권 사용료는 77원씩 걷어 여러 저작권자에게 나누어 보내겠지. 그런데 음원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았다는 것이지 온라인에서 쓰겠다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이 전화를 돌린 속 편한 사우님은 대체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공방은 삼십 분 가까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어디선가 들었던 비유를 꺼냈다. “선생님, 라면을 드시려면 라면도 사고, 냄비도 사고, 물도 받아야 하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라면만 사신 거예요.” 이 말이 펑 그럴싸하게 들렸던 걸까. 냄비처럼 끓던 수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다. 이후에도 그는 한참을 더 따져 물었지만, 통화가 끝날 무렵에는 어느 정도 납득한 듯 이용허락 절차를 물어보았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 비유는 두고두고 마음에 있었다. 곱씹을수록 어딘가 설익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면이든 냄비든 한 번 사면 온전히 내 것이 된다. 끓여 먹든 부수어 먹든 누가 쫓아와 계산서를 들이밀지 않는다. 그런데 음악은 그렇지 않다. 음원을 구매했다고 그 노래를 이용할 모든 권리까지 얻은 것은 아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들려주느냐에 따라 산정 방식과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지금의 나도 누가 물으면 규정집부터 펼친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겠지만 지금 다시 같은 물음을 받는다면, 또 굳이 라면에 빗대어야 한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건 집에서 끓여 드시는 용도로 사신 겁니다. 그 라면을 식당에서 판매하려면 허가가 따로 필요하지요? 음악도 그렇습니다. 구매하신 음원을 혼자 듣는 건 자유지만, 남들에게 들려주는 일은 새로 허락을 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언론에는 저작권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과 철마다 돌아오는 ‘연금’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린다. 그러나 저작권 사용료를 다루는 우리가 매일같이 다루는 금액은 대개 이처럼 작은 것이었다.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서 노래가 한번 재생될 때 저작권자 몫은 대체로 1원 미만. 1원짜리 동전도 거의 사라진 시대이니 손으로 만져 볼 수도 없는 돈을 다시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는 셈이다. 유난히 긴 통화를 마치고 나면 인건비는커녕 통화료나 나왔을까 싶어 질 때도 많았다.

그래도 이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전화로 따져 묻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가운 고객님(?)들이라는 것이다. 남들도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내는지, 청구된 금액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을 뿐, 정당한 값을 치를 마음은 있는 사람들이니까. 따져 묻는다는 건 적어도 음악에 값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일이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곳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을 음악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마법 같은 기술은 아직(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없다. 그러니 나는 어쩌면 늘 정직한 사람들과만 다투고 있는 셈이었다.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라고 할까. 이 일을 맡은 뒤로는 음악을 그냥 듣기가 어렵다. 카페나 헬스장에서 노래가 흘러나올 때, 책 속에서 낫익은 가사 한 줄을 만날 때마다 문득 생각한다. 이 음악은 제값을 치른 것일까, 이 가사는 정당하게 인용된 것일까. 물론 알 길은 없다. 값을 치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음악은 같은 소리를 낼 뿐이니까. 그렇게 남들에게는 쉽표인 음악이 내게는 물음표가 되곤 한다.

물음표가 유난히 많이 쌓인 날이면, 나는 그 작은 돈들의 행선지를 떠올려 본다. 그날 그가 납부한 사용료도 배관을 타고 흘러가, 어느 작곡가와 작사가, 또 편곡자의 지급내역서에 몇 줄로 남았을 것이다. 어딘가에는 그 가느다란 물줄기가 꼭 필요한 사람도, 그 몇 줄을 고맙게 여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언젠가 그런 전화가 또 걸려 오면, 나도 조금 더 반갑게 받을 생각이다. 삼십 분을 따져 묻던 그 목소리가 누군가의 라면 한 그릇은 되었을 테니까.